

주요 아제르바이잔 경제동향[2022.10.1.-10.14]

1. 에너지 및 인프라

가. 주재국, OPEC+ 합의에 따라 2022년 11월 생산쿼터 감축 결정

- 에너지부는 10.5 제 33차 OPEC+회의 일평균 200만 배럴 쿼터 감축 합의에 따라, 11월부터 주재국 일일 원유생산량을 지난 8월 수준(717,000배럴)에서 감소한 684,000 배럴로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함.

나. 1-9월 아제리 라이트 평균유가 발표

- 10.4 SOCAR는 금년 1-9월 아제리 라이트(Azeri Light) 평균 유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함.

	2022년 1-9월	2021년 1-9월	비교
아제리 라이트/ US \$	107.22	68.27	57.1%

다. 주재국, 2023년 튀르키예 가스 공급 확대 예정

- 10.6 제 2차 아제르바이잔-튀르키예 에너지 포럼에서 샤바조프 주재국 에너지장관과 돈메즈(Fatih Donmez) 튀르키예 에너지·천연자원장관은 아제르바이잔-튀르키예 가스공급 관련 논의함.
- 샤바조프 장관은 금년 9개월 간 튀르키예 공급된 가스 61억 입방미터 중 42억 입방미터가 TANAP을 통해 공급되었으며, 2023년

아제르바이잔에서 튀르키예로 수출되는 가스량은 최대 93억 입방미터에 이를 것이라고 함. 또한, 아제르바이잔 전력은 튀르키예로 수출되고, Zangazur 회랑을 통해 유럽으로 수송될 것이라고 함.

- 돈메즈 장관은 TANAP 연간수송량을 160억에서 320억 입방미터로 2배 증량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가까운 시일 내에 에너지 부문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 예정이라고 밝힘.

2.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협력

가. 2022년 1-8월 비석유부문 수출량 동향

- 9.30 주재국 경제개혁센터(CAERC)는 금년 1-8월 비석유부문 수출량이 전년동기대비 19% 증가하여 19억불을 기록했다고 발표함.
- 비석유부문 주요 수출제품은 △면사(1억 4,340만불), △요소(1억 4,220만불), △토마토(1억 3,420만불)임. 주요수출국은 △러시아(5억 2,760만불), △튀르키예(4억 9,110만불), △조지아(1억 2,690만불), △스위스(1억 1,770만불), △미국(6,010만불) 순.

나. IMF, 2022-2023 주재국 경제성장을 전망치 조정

- 10.11 IMF는 2022-2023 주재국 경제성장을 전망치 조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. 금년 주재국 GDP 성장을 전망을 3.7%로 조정하였으며, 내년 인플레이션은 10.8%로 예측하고, 2024년에는 한자리수로 감소할 것이라고 함.

	2022	2023
실 GDP 성장률/%	3.7	2.5
인플레이션/%	12.2	10.8

현 경상수지/GDP 대비	31.7	31.4
실업률/%	5.9	5.8

다. WB, 2022-2024 주재국 경제성장 전망 발표

- 10.4 WB는 2022-2024 주재국 경제성장 전망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.

	2022	2023	2024
실 GDP 성장률/%	4.2	2.8	2.6
농업/%	1.1	2	2.2
산업/%	2.7	1.5	1.3
서비스/%	7.3	5	4.6
인플레이션/%	12.5	9.5	8
현 경상수지/GDP 대비	24.5	16.7	13.4
FDI 순유입/GDP 대비	-1.6	-1.1	-1.1

- 원유 생산의 점진적 하락은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.
- 아르메니아와의 충돌 지속 또는 심화,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, 주요 무역국의 둔화, 선진국의 재정긴축 등은 주재국 경제 하방 리스크 내포함.

라. 아제르바이잔-몰도바, 에너지 협력 확대 논의

- 10.10-11 가브릴리차(Natalia Gavrilita) 몰도바 총리는 주재국을 방문하여 알리에프 대통령, 아사도프 총리, 자바로프 경제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, 양국 에너지, 경제, 농업, 투자 분야 협력 확대 관련 논의함.
- 가브릴리차 총리는 몰도바는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, 석유제품,

전력, 비료생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며, 구매계약 체결과 에너지 및 농업분야 공동프로젝트 개발할 의사가 있다고 함.

- 이후 개최된 제 4차 아제르바이잔-몰도바 정부간 공동위원회에서 카리모브 주재국 농업장관과 스피누(Andrei Spinu) 몰도바 부총리는 양국 협력전망에 대해 논의하고, 무역, 에너지, 농업, 지역개발 및 건설, 과학 기술, 노동 및 사회 분야, 식품안전, 관광, 세관, 교통, ICT 외 기타 협력 확장에 대한 제 4차 양국 공동위원회 결과 의정서 서명함.

마. 아제르바이잔-EU, 2026년까지 비석유부문 교역 확대 예정

- 하지리(Tural Hajili) 주재국 투자무역진흥청(AZPROMO) 수출진흥과장은 동방파트너십(Eastern Partnership) 내 EU 디지털거래 플랫폼 프레젠테이션에서 EU는 아제르바이잔의 무역 거래 전략적 파트너로, 2026년까지 EU-아제르바이잔 비석유부문 교역을 50억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.

바. 아제르바이잔-카스피해연안국가 경제협력 동향

- 10.6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2차 카스피해 경제포럼에서 아사도프 총리는 금년 8개월 간 아제르바이잔-카스피해연안국과의 교역액은 45% 이상 증가하고, 아제르바이잔 동서 회랑(East-West corridor)을 통한 화물수송은 20%, 북남회랑(North-South corridor)경로를 통한 수송은 33% 증가했다고 밝힘.
- 또한, 아제르바이잔-카자흐스탄-투르크메니스탄 간 카스피해 해저 광섬유케이블 설치, 아제르바이잔-투르크메니스탄 간 카스피해 도스틀룩(Dostlug) 유전 공동탐사 및 개발, Zangezur 회랑 개통 등 에너지, 교통, 통신분야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함.